





목록

<Puzzling (a) Space> : Hillyer Art Space 9.3~10.22 | 전시 소식

전체공개 2010. 08. 20 10:39

 윤기자(uturnbaby) 카페스텝 

http://

naver.com/mphotonet/4434

주소복사

<Puzzling (a) Space>

2010.9.3~10.22

Hillyer Art Space

9 Hillyer Court NW Washington DC 20008

703-507-0864

www.projectandini.org



당 렌 | Reflected Light Series (2010년 7월 14일 오후 6시 13분) 비디오 스틸 | 2010 | 가변적 크기 | 비디오 설치

전시 소개

프로젝트 안디니(Project Andini)는 오는 2010년 9월 3일(금)부터 10월 22일(금)까지 워싱턴 DC 소재 Hillyer Art Space에서 'Puzzling (a) Space,' 현대 아시아 작가 4인전을 개최합니다. 회화,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으로 구성된 본 전시는 워싱턴 DC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계 젊은 여성기획자 2인의 공동기획전이자 DC 내외에서 활약중인 아시아계 신, 중진 작가를 소개하는 국제그룹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단선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아시아 여러지역의 작가를 포괄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DC 내에서의 아시아 작가들의 더욱 활발한 교류가 장려되고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새로운 미술문화교류의 한 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전시 기간 중 다양한 연령의 일반 관객과 지역 미술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인 작가와의 대화, 아트 워크샵, 강연 등이 진행 될 예정으로 아시아 예술이 DC 지역의 관객과 다각적으로 소통하는 실질적인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전시 주제

Puzzling (a) Space전은 작품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작품이 놓이는 특정 장소의 문맥 안에서 그 장소와 함께 이

해되어져야 하고, 관객의 참여는 작품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기본 정의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전시가 펼쳐지는 갤러리라는 공간적 맥락을 건축,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심화 확대하는 것으로 좀 더 복잡해져가는 현대미술의 흐름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본 전시 참여작가들은 '개념'과 '과정'을 중시하는 장소 특정적인 현장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Hillyer Art Space라고 하는 비전통적 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개입하거나,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를 창작의 소재로 삼아 DC와 관련있는 이미지를 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전시가 펼쳐질 Hillyer Art Space는 물질적 의미에서의 단순한 전시 장소가 아닌, 유기적인 실체로서의 실천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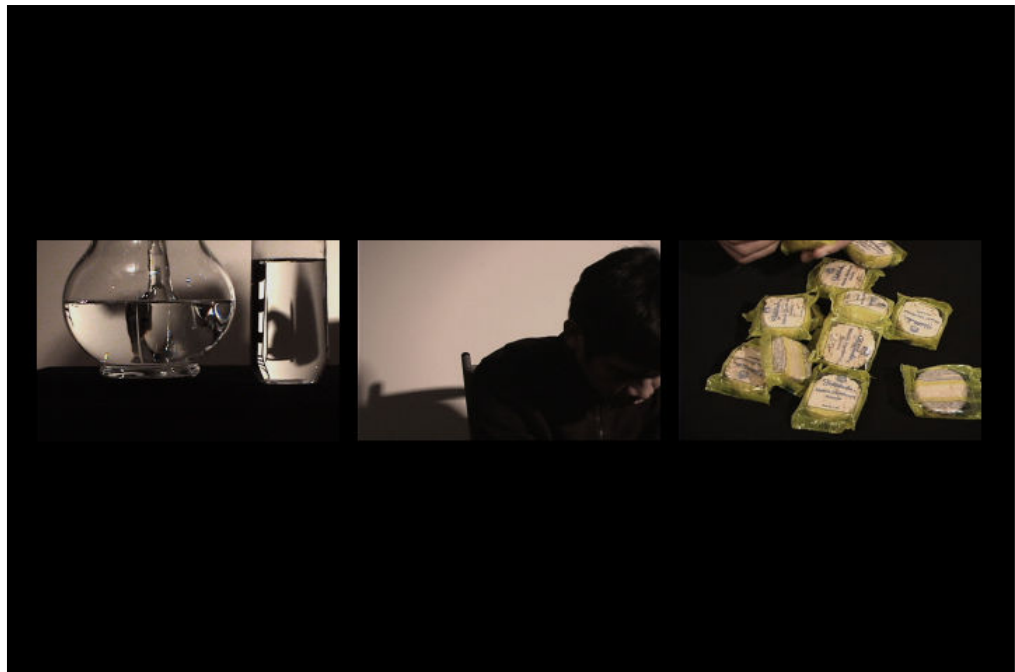
작가와 작품소개

한국 작가 홍순명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는 회화 설치 시리즈, "사이드스케이프"를 선 보일 예정이다. "사이드스케이프"는 인터넷 보도사진들, 특히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참혹한 장면의 코너만을 선택, 확대하여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재현, 설치한 것으로 자극적인 실제 장면은 배제된 채 고요한 자연의 일부만 부각시킨 것이다. 작가는 관객들이 미디어 이미지가 의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 전시에서는 올 해 초 워싱턴 DC를 강타한 폭설 관련 미디어 이미지를 재현한 70여점의 회화를 전시공간에 다이나믹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태국 작가 차크라판 랑가랏나는 여행에서 마주친 자연, 사람, 건물의 모습을 감성적이고 양식적 (stylistic)인 벽화로 승화시킨 "My Ship Is Not Pretty"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멕시코 여행에서 얻은 감각적 데이터들, 예컨대 멕시코의 원초적 색상과 기하학적 형태 등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장소와 문화에 대한 체험을 마치 그림 일기를 쓰거나 꿈을 표현하듯이 갤러리 벽면에 그려낼 것이다.

재미 중국인 작가 덩 렌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단순성과 무(無)에 주목한다. 본 전시에 선보일 두점의 비디오 작업, "Reflected Light Series"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기록된 빛과 그림자 이미지로 갤러리 공간의 코너에 영사될 예정이다. 이 코너들은 전시장 중심 벽과 달리 여러겹의 페인트 흔적이 남겨져 있고 벽 너머의 내부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Hillyer Art Space 이전의 공간의 역사적 자취를 드러낸다. '코너'라는 개념 또한 '아시아인'이자 '미국인'인 작가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에릭 자무코는 2005년에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필리핀 작가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섬'과 이주자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작가는 일상 사물에 내재해 있는 미국과 필리핀의 식민 흔적을 추적하고 사물의 기존 의미에 역사성과 무게를 부여한다. 본 전시에서는 조명, 의자, 나무 등을 연결한 선적인 구조물, "A Tale of Common Things"를 두 갤러리 공간의 벽을 가로지르게 설치할 예정으로 이 구조물은 두 구체적인 장소 사이에 놓인 non-space, 즉 미국과 필리핀 사이를 부유하는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릭 자무코 | Goldilocks Principle 비디오 스틸 | 2009 | 33분 | 비디오 퍼포먼스, 단채널 비디오



홍순명 | 사이드스케이프 (위싱턴 DC.2009년 3월 2일 I) | 2009 | 162 x 112 cm | 캔버스에 유화

관련 행사

- 전시오프닝 (Open to public): 9월 3일 (금) 6pm-9pm 10월 1일 (금) 6pm-9pm
- 작가와의 대화 (Open to public): 9월 4일 (토) 2pm-3pm
- 아동대상 아트 워크샵 (Children's Art Studio 협업, RSVP): 10월 2일 (토) 1pm-3:30pm
- 청소년대상 강의 (OpenArt Studio 협업, RSVP): 10월 16일 (토) 11am-12:30pm
- 감사의 밤 (VIP): 10월 22일 (금) 6pm-8pm

큐레이터 소개

전정옥은 2009년 발족한 예술공동체 (Art Collective) 프로젝트 안디니의 설립자이자 디렉터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관련 행사를 기획, 진행, 컨설팅 해 오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학(Fiber Art) 학사 (1997), 사바나 예술 대학 섬유예술학(Fibers) 석사 (2001), 현재 조지메이슨 대학 철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www.projectandini.org 제 이미 창은 독립큐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조지 메이슨 대학 예술행정학과 석사 (2010)를 마쳤다.

Hillyer Art Space

Hillyer Art Space는 워싱턴 DC 소재 International Arts and Artists라는 비영리 예술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으로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실험미술을 소개해 오고 있다. 미국 국내외 예술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의 국제화를 표방,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www.artsandartists.org

HillyerArtSpace, 홍순명, 뉴욕, 워싱턴

[작성자의 카페글 더보기](#)

윤기자



덧글 1개 | 등록순 | 조회수 17

[답기](#) | [인쇄](#) | [신고](#)



웃음소리 2010/08/20 13:39

전시가 워싱턴이라 가보기는 어렵지만 포토넷 카페에서 조금이나마 감상할수있어서 좋네요



목록

[▲ top](#)